

새가족 환영의 날



박원호 담임 목사
와 여러 새가족들
(장애우, 조선족 등)
새신자와 직접 대
화도 나누었다.

참가한 새가족들
은 기회가 제공된다
면 본인에게 맞는
교회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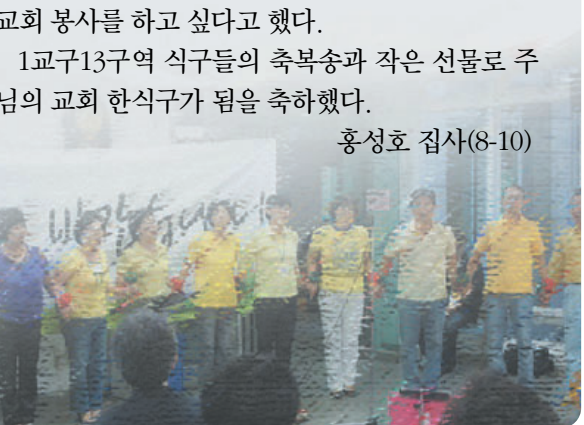
1교구13구역 식구들의 축복송과 작은 선물로 주
님의 교회 한식구가 됨을 축하했다.

홍성호 집사(8-10)

8월31일 오후3시 지하식당에서 새가족 환영의날
행사가 있었다.

5월부터 8월 세째주 까지 등록한 장년 새가족(80
여명)은 각 교구 구역식구들과 다과와 친교를 나누
며 첫만남을 가졌다.

축하연주와 노래(첼로 최영순,바이올린 송현정,
키보드 박지예,테너 윤상민)를 듣고 새가족 김혜영
성도의 주님의교회에 등록하여 감사하다는 우리들
의 이야기를 들었다.



2여선교회 (양조간장 공장견학) 행복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9월3일 수요일에 2여선교회
원들은 이전에 있는 양조간장
공장견학을 다녀왔다.

전날까지 비를 뿌렸던 날씨는
화창했고 이른 출발시간임에도
8월 한 달을 쉬고 만난 때문인
지 회원들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즐거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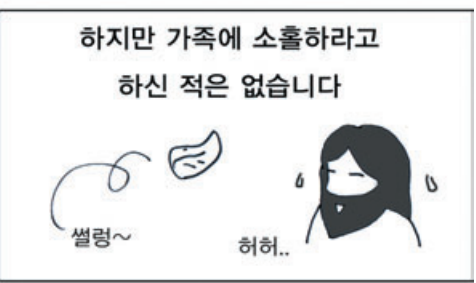
이미 한풀 수그린 더위가 차창 밖의 풍경은 가을로 가
고 있고 공장안의 발에는 키가 훌쩍 자란 메주콩 꼬투
리들이 허수아비 보호아래 그 숙살을 채워가고 있었

다. 견학을 하며 대형 싸이로에 소맥 대두 탈지두등이
세척, 증자, 냉각, 발효되어 간장으로 만들어지는 모습
을 보며 양조간장이 우리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알게 되
었다. 직접 만든 장으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손에는 가
득 선물도 받고 오는 길에 설봉 공원을 돌아보며 자연을
즐겼다.

각 가정에서 식생활을 책임지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2여선교회에서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행사와 방문
하는 등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이혜숙권사 (4-18)

추석 허윤정



함즐함울 기자/기사모집

함즐함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열정을 가
진 교우님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신형섭안수집사 (019.628.7957)

[오늘의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
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3

통 권 제 235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9월 14일

함즐함울

www.pccltv.org



주님의교회 응급실 개원

-본격적인 성도의 삶의 질 향상의 길 열려...

지난 8월 31일 본 교회는 응급진료실을 개원했다. 1
층 중예배실 옆에 개원한 응급진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성
도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응급실이 설치된다는 의미는 현대교회가 양적 성장
만을 추구하거나 소외계층을 돌보지 않는 소극적 선교
에 비해 좀더 영혼의 상처를 치유와 더불어 심신의 치
유까지도 교회가 관심을 갖는 적극적 선교의 시작이라
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성도들의 영
혼과 육신이 함께 치유된다는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준비해온 김학원 안수집사는 “본교회에 출석
하고 있는 의료인 중에 시간을 정해서 응급사태를 대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해 왔
다” 고 보고했다.

개원식에서 당회장 목사님은 “이제 주님이 세운 주
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성도를 건강도 돌보게 되었다”
고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애쓰신 의료인 사역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응급실이 개원되었다고 해서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응
급실을 잘 활용하되 상황판단에 대한 성숙한 태도가 요
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하태원 기자

응급진료실 진료수칙

1. 주일예배 중 응급으로 발생한 교우들의 질병을 진찰하고 처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교우를 돌봄에 있어 무리한 처치는 지양하고, 주일 이후 개인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중한 환자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금년 6월 13일 선한사마리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즉시 있을 수 있는, 처치중 의료사고 시비에 대하여)

3.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처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 시 가이드라인>

1. 09시부터 13시까지 당직 의료진은 가능한 한 진료실에 상주하여 주심시, 그 외 자문의료진은 교회에 도착하시면, 먼저 의무실에 들려 개시판에 당일 교회체류시간을 적어주시고, 당직의료인이 문자로 도움을 청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후대전화를 소지하십시오.

2. 간호파트는 드레스 세트를 지속해서 관리를 하여주시시오.

3. 약무팀은 진료실 안의 약품의 출입을 관리하고 환자 진찰 후 조제를 도와주시시오.

<의료진 가이드라인>

1. 09시부터 13시까지 당직 의료진은 가능한 한 진료실에 상주하여 주심시, 그 외 자문의료진은 교회에 도착하시면, 먼저 의무실에 들려 개시판에 당일 교회체류시간을 적어주시고, 당직의료인이 문자로 도움을 청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후대전화를 소지하십시오.

2. 간호파트는 드레스 세트를 지속해서 관리를 하여주시시오.

3. 약무팀은 진료실 안의 약품의 출입을 관리하고 환자 진찰 후 조제를 도와주시시오.

문화클래스

〈한국 무용반〉

전통 무용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바라며...

주님의교회 한국 무용반이 개강을 한 지
도 벌써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무지개
축제와 어르신 초청
잔치 등 두 번의 공연
을 하였다. 처음 개강
을 하였을 때는 한국
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연습
을 열심히 하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에서
서로의 두터운 우정이 싹트기도 했다.

한국무용이 중년 여성에게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고 다른 교회
행사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에도 한국 무용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주님의 부르
심에 힘입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무용의 춤사위를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

님이 몇십년을 한국무용을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팀은 연습을 하기 전에 기도를 꼭 드린다. 무용반 성도들이 서로 교
제를 나누며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영적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가
득찬 하루가 되게 해주시라고...

전통 무용을 배우려 하는 교우들은 연령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지하 유치원실에서 연습한다.

배숙자집사 (6-2)

2008
2학기

주님의교회 문화클래스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으로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의미
와 방법을 알아갑니다.

개강: 2008년 9월7일(주일)~12월7일(금)

신청: 8월31일(주일)부터 1층 안내데스크

PTP
Parent Teacher Prayer

학부모교사기도회

9.20~12.6(12주) 매주 토 10:00~11:40(am) 소예배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창을 여는 사람들, 여는 교회를 보십니다.
주님의교회 속에서 부모와 교사라는 이름으로
기도의 창을 함께 여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로 템 나 무

상처받은
마음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5:7)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선 마음의 문을 닫는다.
되도록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궁홀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시 때문이다.
그 사람 자신도 모르게 자라난 가시이다.
자신도 여쭙 수 없는 가시를 품고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그 사람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 내게도 남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다.
누군가 나의 가시에 찔려 얼마나 아파했겠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용서하시며 궁홀히 여기신다.
나의 가시를 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단기선교 후기	3면
새가족환영의날	4면
문화클래스 탐방	4면

엄혜숙 기자

의를 위해 박해 받는 자

마태복음 5: 9~12



박원호 담임목사

오늘로 팔복 설교는 마지막 됩니다. 마치 막이어서인지 저의 마음도 그랬고, 말씀의 내용도 비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라는 말도 반복해서 나오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마지막의 복은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복을 천국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복을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근본적으로 누구인지,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8개의 복을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마치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특권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감격함을 갖게 되지만 원치 않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들도 해결되었고, 이제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도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성도들은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를 “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말도 아니라 이미 박해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은 이제 여덟 번째 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내 있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면에서 박해입니다. 애통합도 박해

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도 박해이고, 궁핍히 여김도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은 한 마디로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많고,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많고, 도덕적인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 모두가 어떤 면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도덕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만 아닙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란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처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우리의 성격의 잘못으로 인한 핍박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한 핍박도 아니고 자신의 의를 위한 핍박은 더 더욱 아닙니다. 주님을 닮기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 핍박이 복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15:19)

박해를 받는 이유

오늘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겼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아벨은 형가인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요? 주

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박해 받을 일입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더구나 다름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더 불편하고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없이는, 신념이 없이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다가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르지 않다는 말은 많은 경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룰 자신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같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안전합니다. 왜 우리들은 다릅니까? 뭐가 달라서, 다르게 살아갑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하나를 대하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의 뜻은 주님의 제자들은 선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기에 당연히 다르다는 말이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충성되이 여기는 종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당시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결코 지금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이들은 박해가 다가올 때 달랐습니다. 박해가 다가올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피하지도 않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회복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이기는 방법

본문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식을 넘어서 극한 기쁨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도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악의 역사를 말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열두 영되는 천사를 불러오실 수 있어도 악을 하나님께 맡기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이유없이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항상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박해를 참으셨고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결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주님은 이들을 조금도 미워함 없이 대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이 주님을 사랑하지듯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든 부수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수천조각으로 부수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이들은 더욱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지만 다른 나라 백성들입니다.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조금도 우리를 물리서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거룩한 사명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난 7월20일 주님의 교회 단기선교 팀 40명은 캄보디아로 단기선교 여행을 떠났다. 이미용팀봉사로 석달 전부터 이미용 연수를 받았다. 의미도 잘 모르면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과연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을까? 걱정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캄뽕뜨라엑”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서로 나누어져서 팀별로 맡은 일을 하였다. 이미용팀은 처음에 현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가 어색 하였지만 모두들 열심히 하고 그 결과가 대단히 좋아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었다. 오랫동안 감지않은 머리는 뚝뚝이가 되어서 머리빗이 잘 내려가지 않고 빛은 빛 아래 손등에는 거면 머릿이가 내려앉았다. 머리를 헤치면 하얀 석회들이 집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팀원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아름다웠다. 더 깎으려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음날을 기약했습니다.

“쫄거리”에서 70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역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나 많이 몰려드는 아이들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질서가 없고 순서는 무너졌다. 심지어는 의자를 놓고 울타리를 넘어서 몰래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한사람 한사람 안아주며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린 생명들을 구원해 주소서. 생명목에 기재해주시고 평생토록 이들의 삶을 인도해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체 못할 눈물을 흘렸습니다. 뽀레아예수 쓰릴란남(예수님은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쏘뽀 뽀레아예수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에는 아벤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배운 서툰 말이지만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 울타리너머 서 있는 부모님들, 모두가 아무 저항 없이 그저 힘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목에 이름표를 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후원자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몸차림도 깨끗하고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21말씀.

황옥자 집사(5-20)

미래 선교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준 비전트립



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한국의 (주)한성엔지니어링을 통하여 한국의 보일러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속품의 70%를 납품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감사함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아 한성기업의 장일재 집사님과 신영숙 권사님의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고등부 학생이 선택되어진 멋진 비전트립이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②

지난 여름에 있었던 단기선교에 차분하고 진실되게 맡겨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성도님들의 선교후기를 모은 것입니다. 남은 후기는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편집부

섬김과 보살핌의 호스피스 선교

이번 몽골 비전트립은 참으로 의미가 새로웠다. 비전트립이긴 했지만 선교지에서 호스피스병원사역과 홈케어를 통해 죽음을 앞둔 몽골 환우들을 돌보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팀은 많은 팀원들을 지냈고 국내사역도 여러 병원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역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사역의 근간이 되는 섬김과 보살핌이라는 큰 줄기는 변함이 없었다.

이번 호스피스사역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환우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깎아주고, 감겨주고, 몸을 씻어주었다. 그럼으로써 환우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결국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사역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현재 의료선교의 흐름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사역의 형태에서 예방사업이나 지역사회개발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을 중점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병원사역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호스피스와 같은 궁핍사역이 병원사역에 더해진다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이 우리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선교지에서는 타 교회나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병원사역보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호스피스병원은 고가의 의약품이나 의료장비나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죽어가는 환우를 마지막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최소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셨던 것과 같이 care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권에서의 가정(대가족)을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슬람문화에서는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는 좋은 전통이 있어 호스피스의 도움을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받게 된다면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감소할 것이고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역이 이슬람권이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지역에서 좋은 선교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현식 집사(2-15)



또한 선전기업의 견학과 세계 초일류 기업의 역사 박물관등을 견학하게 됨은 미래의 이상을 꿈꾸고 실현 해 나아가는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경험으로 남겨질 것이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과의 만남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일본 현지의 과거와 현재의 선교 활동을 통한 미래의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었으며, 현재의 삶을 뒤돌아 보는 아주 좋은 경험으로 남겨질 것이라 생각한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비전트립을 마칠 때까지 많은 수고와 기도로 끝까지 함께한 고등부 교사들, 비전트립에 관계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선례가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계속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이끌어주신 장일재 집사님과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신영숙권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박종욱 집사 (5-27)